

시론



김영식

남부대학교수·웃음명상전문가

오늘도 지구는 돌아가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는 뜨고 달이 지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린다. 이 무한한 우주의 법칙은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삶도 마찬가지로 다. 마냥 좋은 날만 있지 않고 항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나.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 졌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심지어 가까운 지인이 생을 마감하고 떠나도 장례식장을 찾아 슬퍼해 주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학교에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고, 길거리에 사람과 자동차가, 가게에는 손님이 사라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접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시청률

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뉴스였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인간의 가치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그만큼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불안하다는 말이라라.

‘시끄럽다’는 말은 동의와 합의보다는 이견과 갈등의 표출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불안하다’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능하고 예측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심리적 반응이다. 학자들은 우리가 당면한 오늘날의 이 혼돈과 불안의 시간을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라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Nietzsche)는 각 시대의 고귀한 정신의 총량에 따라 역사가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 나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민족은 개국 이래로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의 건국이념으로 살아왔고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 이 정신이 깃들여 있다. 여기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여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자부

해 왔던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홍익인간의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위기를 해소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는 그 시대 국민의 주요한 불안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마음가짐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실천했다고 한다. 널리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다. 홍희인간(弘喜人間)의 정신 즉 널리 인간을 기쁘게 하는 리더십이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라고 본다.

코로나 블루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좌절감, 분노, 두려움 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공포정치를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공포정치를 통치의 도구로 사용 되서는 안된다.

결국 그 결말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의 발달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지만 환경재해라고 하는 큰 재앙을 불러 왔으며 그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머지않아 우리 인간들이 사라지는 지구의 모습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그것은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갈 것이고 결국 인간사회의 사라진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널리 인간을 기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등장한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기만 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공통이나 코끼리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동물에게 없는 것이 바로 창조의 영역이다. 여기에서 창조(創造)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창고에 있는 선한 마음을 꺼내어 잘 다듬어 쓴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인간은 놀이로부터 진화했다고 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이론에서 보듯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머를 만들고, 놀거리를 만들어 내서 그 위기를 극복 해왔다. 홍희인간(弘喜人間)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만들 것들을 찾아보는 1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치칼럼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퇴근길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다. “32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였다. 함께 있던 동료가 필자에게 물었다. “매우 중요한 법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현수막은 작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게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축하할 일이며, 잘한 결정이다. 핵심 골자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했다는 점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이다. 더불어 자율성 강화

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시스템 구축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추진을 제안하면서, 광역연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부·울·경 동남권 인구 800만의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를 통해 광주전남의 인구 332만의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민간공공과 군공항 이전 등 광주·

전남의 갈등은 시도통합의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특례시이다.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 권한을 받을 수도 있다. 전남의 순천(28만), 여수(30만), 광양(15만)인구를 합하면 73만이 된다. 순천, 여수, 광양이 통합되면 특례시 권한을 받을 수도 있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갖게 된다. 10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창원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되지만 전주시의 경우 인구 100만이 되지 않지만 추후 절차에 따라 특례 권한을 받을 수도 있다. 전남의 순천(28만), 여수(30만), 광양(15만)인구를 합하면 73만이 된다. 순천, 여수, 광양이 통합되면 특례시 권한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상당한 수준의 혁신적인 지방자치법이다. 광주·전남은 1년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토론과 논의가 일상화되어

지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개정법의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들 모두가 자치의 권리와 의무자로서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광주형 주민자치 대강좌’를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와 대학에서는 온라인 교육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육 및 기자재 대여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자치는 세심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주민들에게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단계를 넘어 고기잡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은 고기잡는 것이 자신의 권리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홍희인간(弘喜人間)이 되자

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 우울감 헤아리길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대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권장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하는 모습이다.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매출 기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설 연휴특별 방역기간까지 더해지면 명절 대목도 물 건너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3차 지원금도 응급 처치용으로 불과하다며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내고나니 남는 게 거의 없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만성 피로, 피곤함 우울감이 늘고’, ‘일의 질이 저하됐으며’, ‘일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 ‘소비축진 지원책 확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이대로라면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나날이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져 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속 돋보인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전남도가 지난해 여름 휴가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제는 밀집도와 혼잡도를 완화해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이다.

도는 9개 시군 13개 해수욕장에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했고, 발열 체크한 후 이상 없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 연구용역 결과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됐다.

용역을 수행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방문객과 주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사전예약제를 통한 사회적 적정거리 유지 및 인구 밀집 분산 유도 효과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백사장 내 이용객이 느끼는 위험도를 낮춰 코로나19 방역 효과뿐 아니라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의사를 유도해 해수욕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주요 외신인 BBC, NHK에서 세계적인 방역 관리 모범사례로 보도돼 전남의 하계유망지 운영 위상을 제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운영기간 중 16만7천명이 도내 안심 해수욕장을 이용했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만6천원으로 약 160여원을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전남 해수욕장은 매년 여름 100만명 이상이 찾는 피서지이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예약제로 인원을 제한했으며, 조기 폐장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성과평가에서 향후 해수욕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예약제 운영 개선방안이 제시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국비 확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해양수산부와 다른 시·도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해 대규모 유원지와 섬을 비롯한 관광지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도 있다. 그런데, 이외의 평가를 도출해 의미를 더한다.

전남도가 더 촘촘하게 시스템을 보완, 감염병 발생 시 관광지 운영 정책 모델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바란다.

아침물에는 詩

겨울 우화

이지업



고추씨 오쟁이에 바람 한 줄 살금 달고 가는 겨울 한낮 입 뿔 벌린 장독대 향아리들 금줄에 걸린 햇살들이 때로는 문지방 애써 기어오르다 고드름 끝에 켜그랑 부서진다 그러자 직립으로 낙하하는 물방울 그 투명한 속살 그 살결 파고들어 마약 같 떠나려는 찰나 그 밑에 한가하게 한 세월 종계 넘어가던 고양이아 그만 그 살가운 파고들며 밟고뿔을 뒤엎고 등을 세우며 부르르 떨고 선다 내게 왔다가 가버린 사람 늘 그러하였다 (시집 ‘씨앗의 힘’, 세계사 2001)

[시의 눈]

사랑이란 누구에게나 잠깐이면 족할 찰나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유지되는 사랑이란 지상에 없으니까요. 그걸, ‘고추씨 오쟁이에 바람 한 줄 살금 달고 가는 겨울 한낮’을 한가하게 즐기려는 고양이의 파적(破跡)으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짧은 햇발에 노니는 고양이 등에 문득 녹기 시작한 고드름 칼이 낙하하여 파고들다. 소스라치게 놀란 고양이는 밟고로쭈차 엎지르고 부르르 떨지요. 해서 화자는 깨닫습니다. 왔다가 가버리는 짧은 사랑일요. 현대, 그걸 설명하기 보다는 시켄스도 명징화하는군요. 이지업 시인은 해남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1982년 ‘한국문학’ 신인상 시 당선과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아리사의 눈물’(1979), ‘다섯 계단의 여동’(1984), ‘사람의 마음’(1990), 시조집 ‘떠도는 삼각형’(1989), ‘해남에서 온 편지’(2000), ‘담양에서 시를 묻다’(2016) 등이 있으며, 남도적 기질과 서정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 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朴俊洙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李庚秀

(우)8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945-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정취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문의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시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